

계, 인간형성의 기본조건

혜능스님의 '재가자 위한 계율' <25>

내가 악행을 하면 스스로 더러워지고, 내가 선행을 하면 스스로 깨끗해진다. 그러나 깨끗하고 더러움은 내게 달린 것, 아무도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없다고 법구경에서 말한다.

《법구비유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울다라파제라는 나라의 오백 바라문은 갠지스 강가에 있는 신령스런 연못에 제사를 지내고, 목욕하고 벌거벗은 수행을 하여 신선이 되고자 집을 떠났는데, 가던

“그대들은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로 가는가?”
“저희들은 신령스런 연못으로 가 신선이 되고자 했는데, 그만 길을 잃고 해마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구해 주십시오.”

그러자 나무 신은 손을 뻗어 갖가지 맛있는 음식으로 바라문들이 배불리 먹고 마시도록 해주었다. 남은 음식은 길 떠나는

대신은 나에게 우유죽을 나누어 공양 올리도록 했고, 공양이 끝난 뒤에는 설거지를 시켰소. 나는 자리를 깨끗이 정리한 뒤에 부처님의 설법을 들었는데, 그 시간은 가슴 벅찬 환희였고, 내 기쁜 마음은 헤어질 길이 없었지요. 설법이 끝나고 그 자리에서 ‘팔관계’를 받았는데, 집으로 돌아온 나는 계를 지키려고 저녁 밥을 먹지 않았소. 그러자 아내

에서 많은 음식물이 나오는 것은 우유죽을 들여다 부처님과 대중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 공덕 때문이지요. 그때 만약 팔관계를 온전히 지켰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 나무 신으로 살지 않고 하늘 나라에 살고 있을 것이요.”

신을 찾아 해매는 일이며 / 만나는 것은 재앙뿐이고, / 쫓겨가는 재앙의 큰 가지여, / 그 괴로움 벗어나는 길은 / 오직 팔관계 지니는 데 있네.

계율을 ‘별해탈(別解脫)’이라고도 하듯, 계는 어떻게 지키는가에 따라 거기에 상응하는 값을 스스로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계를 지키려는 본인의 의지와 함께 주변 환경의 소중함도 일깨워 주고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습관이나 기질, 성향 등은 깨달음으로 가는 좋은 습관·기질·성향을 말하는 것인데, 결국 인간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행위가 되는 여러 가지 규범을 불교에서는 ‘계’라고 한다. 흔히 인간의 기질이 나 성향을 교육과 사회와 타고난 천성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인간 형성의 근수이므로, 계라고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인간 형성의 기본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인총림 율원장>

“우리는 주인이면서 종 서로 돕고 존경해야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우주 만상 모두가 다 부처님의 세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산천 초목과 미물 중생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우리의 분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인이면서, 다른 모든 것들의 성립을 도와주는 반려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주인인 동시에 반려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번창과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만 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을 곧 나의 원초적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 때 그 사람이 올바른 불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부처이므로 모두에게 헌신해야 합니다. 모두가 중심인 동시에 모두가 다 주변인이며, 더불어 존재한다는 세계관, 이것이 불자의 세계관이야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이와 같은 법칙을 너무나 쉽게 그리고 자주 깨고 있습니다. 생태적인 조화와 평형의 세계인 이 화염의 세계를 마구잡이로 해치고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탐착과 탐욕 때문에 생태계의 조화와 균형을 깨고 있습니다.

법회중계

대구 평화통일기원정사

<2000년 7월 2일>



법륜스님 <평화통일 기원정사주지>

산천초목도 우리의 분신
인간 탐욕·무지때문에
생태계 조화 깨지 않도록

부처와 보살은 한 몸 가운데, 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삼승상인’입니다. 따라서 불교를 공부한 사람은 범부중생이면서 보살이어야 합니다. 보살과 부처는 먼 사이가 아니라 내 한 생각 바꾸면 보살과 부처가 됩니다. 불교를 어떻게 해석하면 중생들을 잠재하는 도구도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나는 부처다’만 주장하는 사람은 반쪽의 세계밖에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부처인 것이요, 모두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막혀 있고 닫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열려 있는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존재이며, 다만 주장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을 연기론적인 세계관이라 합니다. 정부가 얽혀 있으면서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을 항상 공존의 원리로 채워야 합니다. 자연과 우리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탐욕을 버리고 덜 먹고 덜 쓰고 살아야 합니다.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그것

부중생이면서 보살이어야 합니다. 보살과 부처는 먼 사이가 아니라 내 한 생각 바꾸면 보살과 부처가 됩니다. 불교를 어떻게 해석하면 중생들을 잠재하는 도구도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나는 부처다’만 주장하는 사람은 반쪽의 세계밖에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부처인 것이요, 모두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막혀 있고 닫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열려 있는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존재이며, 다만 주장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을 연기론적인 세계관이라 합니다. 정부가 얽혀 있으면서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을 항상 공존의 원리로 채워야 합니다. 자연과 우리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탐욕을 버리고 덜 먹고 덜 쓰고 살아야 합니다.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그것

부중생이면서 보살이어야 합니다. 보살과 부처는 먼 사이가 아니라 내 한 생각 바꾸면 보살과 부처가 됩니다. 불교를 어떻게 해석하면 중생들을 잠재하는 도구도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나는 부처다’만 주장하는 사람은 반쪽의 세계밖에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부처인 것이요, 모두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막혀 있고 닫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열려 있는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존재이며, 다만 주장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을 연기론적인 세계관이라 합니다. 정부가 얽혀 있으면서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을 항상 공존의 원리로 채워야 합니다. 자연과 우리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탐욕을 버리고 덜 먹고 덜 쓰고 살아야 합니다.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그것

부중생이면서 보살이어야 합니다. 보살과 부처는 먼 사이가 아니라 내 한 생각 바꾸면 보살과 부처가 됩니다. 불교를 어떻게 해석하면 중생들을 잠재하는 도구도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나는 부처다’만 주장하는 사람은 반쪽의 세계밖에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부처인 것이요, 모두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막혀 있고 닫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열려 있는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존재이며, 다만 주장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을 연기론적인 세계관이라 합니다. 정부가 얽혀 있으면서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을 항상 공존의 원리로 채워야 합니다. 자연과 우리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탐욕을 버리고 덜 먹고 덜 쓰고 살아야 합니다.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그것

부중생이면서 보살이어야 합니다. 보살과 부처는 먼 사이가 아니라 내 한 생각 바꾸면 보살과 부처가 됩니다. 불교를 어떻게 해석하면 중생들을 잠재하는 도구도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나는 부처다’만 주장하는 사람은 반쪽의 세계밖에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부처인 것이요, 모두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막혀 있고 닫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열려 있는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존재이며, 다만 주장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을 연기론적인 세계관이라 합니다. 정부가 얽혀 있으면서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을 항상 공존의 원리로 채워야 합니다. 자연과 우리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탐욕을 버리고 덜 먹고 덜 쓰고 살아야 합니다.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그것

부중생이면서 보살이어야 합니다. 보살과 부처는 먼 사이가 아니라 내 한 생각 바꾸면 보살과 부처가 됩니다. 불교를 어떻게 해석하면 중생들을 잠재하는 도구도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나는 부처다’만 주장하는 사람은 반쪽의 세계밖에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부처인 것이요, 모두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막혀 있고 닫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열려 있는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존재이며, 다만 주장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을 연기론적인 세계관이라 합니다. 정부가 얽혀 있으면서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을 항상 공존의 원리로 채워야 합니다. 자연과 우리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탐욕을 버리고 덜 먹고 덜 쓰고 살아야 합니다.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그것

부중생이면서 보살이어야 합니다. 보살과 부처는 먼 사이가 아니라 내 한 생각 바꾸면 보살과 부처가 됩니다. 불교를 어떻게 해석하면 중생들을 잠재하는 도구도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나는 부처다’만 주장하는 사람은 반쪽의 세계밖에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부처인 것이요, 모두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막혀 있고 닫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열려 있는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존재이며, 다만 주장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을 연기론적인 세계관이라 합니다. 정부가 얽혀 있으면서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을 항상 공존의 원리로 채워야 합니다. 자연과 우리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탐욕을 버리고 덜 먹고 덜 쓰고 살아야 합니다.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그것

팔관계-3

몸·마음 욕망 절제해야 깨달음 도달 나쁜짓 않고 착한 일 하는게 곧 지계

길에 큰 늪을 만나 시간을 보내다가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말았다. 눈 가까이에는 신령스러운 기운을 머금은 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바라문들은 나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람이 살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달려갔으나, 그 곳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다. 바라문들은 ‘배고프고 목이 타는데 재앙까지 겹쳐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고 소리치며 울었다.

그때 나무 신이 바라문들에게 물었다.

“당신은 전생에 어떤 공덕을 지었기에 이토록 늪에 빠졌습니까?”
“나는 지난 생에 사위성에 살았소. 그때 ‘수달’이라고 하는 대신이 어느날 부처님과 대중 스님들께 공양하려고 시장에 나가 우유죽을 샀지요.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있던 내가 우유죽을 들고 가게 되었소.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정사에 이르자, 수달

는 왜 저녁을 먹지 않느냐고 물었지요. 아내에게 그날 있었던 일과 팔관계를 받은 일을 말했다오. 그러자 아내를 화를 내며 세상의 법도를 어지럽히는 부처님의 법을 왜 받아들이며, 음식을 먹지 않아 몸이 상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했소. 할 수 없이 저녁을 먹게 되었고, 그 길로 목숨이 다해 나는 나무 신이 되었소. 어리석은 아내 때문에 팔관계를 깨뜨려 지은 악업을 다 씻지 못했기 때문이요. 그러나 내 손

‘불안한 미래’... 불교서 희망찾아

네덜란드에 불교가 전해진 때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약 100여 년 전 대학을 중심으로 지식인 층에서 불교를 수용하고 철학의 한 분야로써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네덜란드 불교의 시작이다.

1940년대 초까지는 기독교의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학에서 불교학이나 인도학을 연구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2차세계 대전을 겪으며 정신적인 공허감을 느낀 네덜란드인들은 현실의 공허함을 매우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불교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당시 네덜란드 인구 통계에 따르면, 네덜란드에서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3%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이슬람교, 불교, 유대교 등을 모두 합쳐 봐야 아주 미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음을 뜻한다.

그런데 네덜란드불교연합(De Boeddhistische Unie Nederland · 1973년 설립)의 현황을 살펴보면, 과거의 네덜란드 불교 상황과 비교해 큰 변화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불교연합은 현재 70여 개의 지

세계의 불교학 <25> 네덜란드

부를 두고 있으며, 여기에 12만 5천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회원 중 절반 이상이 순수 네덜란드인이고, 평균 6천여 명의 불자들이 매주 본부와 각 지부에서 법회를 봉행하고 있을 만큼, 네덜란드에서의 불교가 꾸준히 세를 확장하고 있다.

불교연합이 창립된 70년대 초에는 구 베트남 정권이 몰락하면서 아시아계 난민(대개 불교신자)들이 네덜란드에 대거 유입했던 시기인데, 이런 과정에서 네덜란드에서 다양한 불교 단체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노력도 일어났다. 특히 티베



△대중법회를 봉행하는 네덜란드 불자들.

자였지만, 1978년 단체로 등록하고 1990년 불교 단체와 조직을 통합해 법인으로 등록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의 대부분의 불교단체와 불교관련 출판사·연구기관 등을 총 망라한 유럽불교 안내서인 ‘유럽불교도연합명부(EBU-Directory)’를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발간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5년 전부터는 방송에서 매일 15분씩 불교 방송을 하고 있어 네덜란드 불교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면서 일반인들로 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불교는 또 정례 문화에서 또 변화의 바람을 불고고 네덜란드에서의 확장 비율이 점점 늘어

가고 있는 등 불교는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생활 속에 스며들고 있다. 아직까지 고등학교 졸업 시험, 즉 대학 입학시험에서 종교학과목으로 불교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라이덴(Leiden) 대학교에서는 불교학으로 학위취득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네덜란드 불교연합은 <불교의 친구들>이란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영어와 네덜란드어로 펴내고 있는 이 소식지는 네덜란드의 모든 불교 종파를 아우르고 있다. 불교 관련 출판사 역시 학술·인문 분야의 다양한 번역서를 출간하면서, 불교의 대중화를 앞당기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1890년 대학·지식인층 불교 수용

불교 관련 학술서 출판·번역 활발

이에 대해 네덜란드 종교학자 뷔울드 즈다네 바사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일반 서민들의 사회 심리적 불안과 불확실한 미래(실업, 물가상승...)에 대한 걱정이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이러한 현상에 대한 불교적 처방, 즉 참선을 통한 치유의 가능성을 찾으려고 했던 것”으로 풀이한다.

트·태국·일본 등으로부터 스님이나 법사들이 들어와 대학과 불교단체에서 직접 법문을 시작하면서, 불교는 지식인과 대학생들의 연구 중심에서 일반인들의 신행 중심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낸 불교단체가 바로 네덜란드불교연합이다. 처음엔 엉성한 모습으로 시

빅-뉴스

피로? 나에게 는 없다!

■ **LIHIS 건강양말**

- 건피부(특히 발이 갈라 지는 분)
- 피부노화 방지
- 속취 해소

건강양말
특허출원번호
0043150
LIHIS

■ **LIHIS 건강숯 양말**

- 당뇨에는 더 이상 당이 안 오름
- 원적외선 차단

건강숯양말
실용신안번호
0165970
LIHIS

상담문의

(주) 화동섬유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321-116
053)582-1245
전남북 특판점 062)956-7676~7
동대구 특판점 053)982-4976

정성과 열이 담긴

승복·법복 보급인니

- 전통의 고종과 현대 감각을 살린 승복.
- 자카드 제직 최신 입체공법으로 된단 생산.
- 면 60수 2합 콤파사 폴리 에스테르 결합(통풍, 촉감 우수)
- 음, 연꽃, 만자 문양 처리로 미적 감각이 뛰어나.
- 정전기 방지(유해 잔치와 차단)

스님께 가서 봉사 보시하면 10%를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계 팔단을 소멸함.

특별보급가격	
상, 하	남:85,000 여:80,000
긴 조끼	남:45,000 여:40,000

전국 대리점 모집
(가격,본질 면에서 경쟁력 있음)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승복·법복의 대명사 “수레비퀴”
제조 공법원: 기원 승복
대구시 동구 신천 3동 74-1 (창신빌딩 1층)
상담전화 (053)755-9889/팩스 053)741-4119
휴대폰 011)9850-4400

추·사·법·서·선·집·전7권 드디어 출간!!

秋史선생 學藝術 집대성

殿板

▶서울 강남구 수도산 문은사 (추사선생 죽기 3일전 쓴 글씨) ▶세한도

▶보급가 : W 230,000
→ 특별보급가격 W 200,000원

【특 징】

- 추사선생의 작품을 원로 서예가 김승호(73세)선생이 20여년 동안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편집하였다.
- 전편 추사해서첩, 예서첩 상, 하 등 5권과 후편 추사화집, 서적정등 전,후편 모두 총7권과 9책으로 1,462쪽의 방대한 분량으로 정리되어있다.
- 최초로 추사 김정희 선생의 學藝術 집대성 책으로써 서예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추사의 고결한 정신과 서한에서를 체계화한 선생의 혼을 이어 받을 수 있는 필독 지침서이다

※ 전화 구입 문의시 안내 소책자 발송해 드립니다.

▶계좌번호 국민은행 : 615-21-0517-898 이민택

구입문의 : 053)982-4976/011)813-3679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1013-1(2층) 추사법서 보급원